

메콩강경제권의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권기철**

I. 서론

아시아의 지역 통합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ASEAN, APEC과 여타 기관들은 대표적인 지역협력기구로 지역경제공동체의 태동에 기여해왔다. 냉전 종식 이후 예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이 경제공동체에 들어옴으로써 아시아제국은 글로벌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고 지역경제협력도 강화해왔다. 그러나 근년에 아시아 내에서는 소지역주의(sub-regionalism)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공식 통합이 좀 더 활성화되었다. 이 현상은 유럽이나 북미에서 경험한 전통적인 지역주의와는 다른 것이었고 학계의 연구도 비교적 적었다.

메콩강경제권(Greater Mekong sub-region: GMS)¹⁾ 경제협력프로그램(이하 GMS 프로그램)은 1992년 해당 국가들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해당국과 ADB는 지역통합과 지역

* 이 논문은 2014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ulk@bufs.ac.kr.

1)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확)대메콩소지역”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메콩강경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이 논문에서도 채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나라와 지역들을 한데 묶어 부를 때에는 GMS 제국(諸國)이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이 지역에는 국가가 아닌 중국의 ‘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외국 문헌에서도 “GMS Countries”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흔해서 ‘제국’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발전을 위해 수송 기반, 농업, 에너지, 환경, 투자, 인적자원 개발, 통신, 관광, 수송 및 무역 제도 등 9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이 출범하기 전에 태국을 제외한 지역 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주도의 경제계획과 수십 년간의 내부 갈등의 결과로 세계시장과는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 그 결과 경제발전 수준도 매우 낮았다.

GMS 프로그램은 그 출범 이후 지역 전체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왔으며, 그것은 그 회원국들의 경제통합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GMS 프로그램의 과업이 시장 기반 통합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제도와 틀의 확립보다는 초국적인 공공재의 제공이 더 강조되었다. 그 결과 GMS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은 초국경 기반시설의 건립에 중점을 두었다. 이 초국경 기반시설 프로젝트들은 지역 통합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GMS 프로그램을 지역 내의 여타 기구들과 차별화시켜왔다. GMS 프로그램이 ASEAN 등과 같은 여타 기구들에 비해 유리한 점은 그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금 공급능력이다. ADB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기여자 및 기관들이 자금공급에 기여해왔다. ADB 외에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관련 강대국들도 이 사업에 참여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교통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ODA를 매개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진출에 대응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조대현, 2011; 이효찬, 2014).

GMS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중국(윈난 성, 광시주양 자치지구)이 포함되어 있다. 이 6개국은 GMS 프로그램이 추진된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해왔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연평균 9.9%씩 성장했으며, 여타 4개국들²⁾도 연평균 6.4%의 성장을 보였다. 이것은 같은 기간 중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 2.7%보다 높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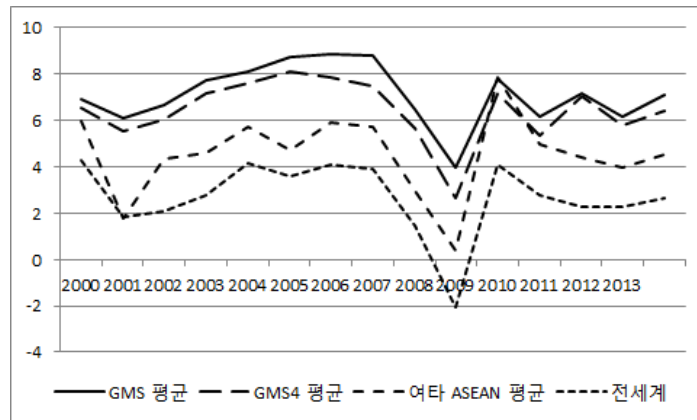
2) 미얀마의 경제성장률 자료는 2004년까지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타 ASEAN제국의 4.5% 성장보다 높은 것이었다 (<표 1>, <그림 1> 참조).

<표 1> 메콩강경제권의 경제성장(1993~2013)

| 국명 | 1993-1996 | 1997-1998 | 2000-2008 | 2009-2013 | 2000-2013 |
|----------|-----------|-----------|-----------|-----------|-----------|
| 캄보디아 | 6.0 | 5.3 | 9.2 | 5.5 | 7.9 |
| 라오스 | 7.0 | 2.6 | 6.9 | 8.1 | 7.2 |
| 태국 | 8.1 | -6.2 | 4.8 | 3.0 | 4.1 |
| 베트남 | 8.9 | 7.0 | 7.5 | 5.7 | 6.4 |
| 중국 | 12.0 | 8.5 | 10.4 | 8.9 | 9.9 |
| GMS4 | 8.1 | -2.2 | 6.1 | 5.6 | 6.4 |
| 여타 ASEAN | 7.5 | -1.5 | 5.2 | 4.3 | 4.5 |
| 전 세계 | 2.7 | 3.1 | 3.1 | 1.8 | 2.7 |

자료: The World Bank, Data의 자료로 작성.



<그림 1> GMS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2000~2013)

자료: The World Bank, Data의 자료로 작성.

GMS 프로그램의 비전은 “통합, 번영, 조화”³⁾였고, 추진전략으로서 “3Cs - 연결, 경쟁력, 공동체”⁴⁾가 제시되었다. GMS 프로그램은

3) a more integrated, prosperous, and harmonious subregion.

통합과 연결이라는 모토가 최우선 순위에 두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내의 국가간 협력을 무엇보다도 중시했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연결성의 강화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실제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ADB가 추진한 55개의 GMS사업 중에서 수송부문이 34개로 60%가 넘으며 총사업비로는 78.6%에 달한다(Steffensen 2012).

이처럼 GMS 프로그램은 초기부터 GMS제국 경제의 통합을 통해 각국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제 GMS 프로그램이 출범한지 20년이 지났다. 오늘날은 최초 출범 시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GMS제국은 모두 정치적 안정을 찾고 있으며 구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시장경제 도입이 궤도에 오른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GMS 프로그램이 GMS제국의 경제 통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향후 GMS가 어떤 방향으로 협력의 줄기를 잡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ADB에 의해 꾸준히 추진되고 여러 국가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 GMS 프로그램을 통해 이 지역의 경제 통합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통합이란 기능적으로는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의 통합을 의미하며, 제도적으로는 FTA나 통화통합과 같은 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⁵⁾ GMS제국의 경제통합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ASEAN의 틀 속에서 FTA를 구성하고 있고 GMS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오고 있다.⁶⁾

4)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community.

5) 손병해에 따르면 제도적 통합은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각 경제주체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통합의 조건과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의 경제통합을 의미하며, 기능적 통합은 시장 내에서의 이윤 동기에 의해 국제적 경제활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 내에서는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손병해, 2011: 7 참조.

6) B. Balassa는 경제통합의 진행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분류는 지금까지

이 논문은 이러한 제도적 통합의 진전으로 기능적 통합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능적 통합은 구체적으로 무역, 투자, 노동이동 등으로 표현된다. 역내무역이 각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GDP에 대한 무역의 비율, 외국인투자의 규모와 비중, 역내 이주노동자의 규모 등이 그 통합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의 통합은 지역 내 각국의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킨다. 이 논문은 바로 이 거시경제의 상호의존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상호의존성 분석을 통해 이 지역의 경제통합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역의 거시경제적 변동의 발원국과 귀착국이 각각 어디인지,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더 큰 국가들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GMS제국의 발전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장차 새로운 GMS 사업이 구상될 때 어느 곳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이나 여타 관심국가들이 어느 나라를 거점으로 삼아야 효율적으로 진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도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지는 II장에서는 GMS제국의 경제통합 현황을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경제통합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공통 추세와 공통 순환의 존재를 검정한다. 이를 위해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행하며,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I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경제통합 연구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Balassa의 5단계는, 자유무역지역(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한 경제통합 등이다. 손병해, 2011: 9-11 참조.

II. 메콩강경제권의 경제통합 현황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은 각국의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무역장벽을 줄여 규모의 경제와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내륙국가의 경우에는 외부시장에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역협력이 더욱 유용하다. 국경간 협력은 지역 하부구조 네트워크의 개발과 국경간 비용 편익의 과급에 대한 관리를 촉진한다. 이 협력이 제도적 기반을 갖고 진행되어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진전될 때 우리는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GMS제국의 경제통합 노력을 범주별로 제도적 통합, 기능적 통합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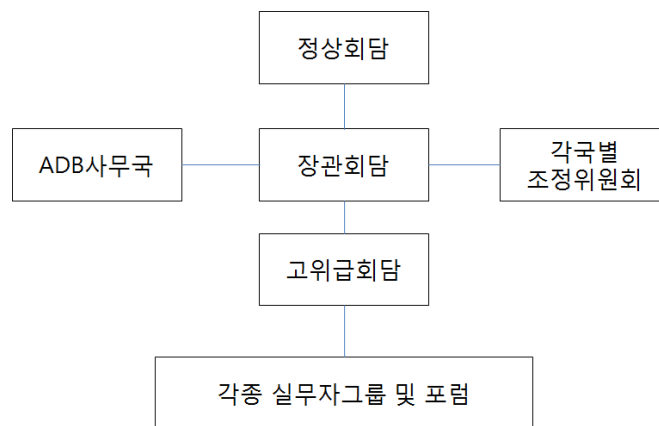
1. 제도적 통합

1992년, 캄보디아, 중국(윈난 성),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6개국을 실행 가능한 지역경제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GMS 프로그램을 창설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 프로그램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출범 이후 이 지역 국가들이 오랜 기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지역 내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GMS 프로그램은 9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별로 실무그룹과 포럼이 구축되어 있다. 9개의 부문으로는 농업, 에너지, 환경, 인적자원개발, 투자, 통신, 관광, 수송 기반시설, 수송/무역 촉진 등이 있다.⁷⁾

7) 2011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40억 달러 가량의 자금으로 55개 투자 사업이 실행되었다(ADB, 2011). 그리고 2014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총 60개로 301

GMS 프로그램의 조직구조는 정상회담⁸⁾을 정점으로 해서, 장관회담, 고위급회담 등의 회의체와 ADB 사무국, 각국별 조정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GMS 프로그램의 조직구조

자료: <http://www.gms-eoc.org/gms-program>의 정보로 필자 작성.

경제통합은 제도적으로 FTA에서 시작해서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거쳐 경제동맹 및 완전통합의 길을 걸어 진행된다. GMS제국 중 중국의 원난 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ASEAN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고 ASEAN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간의 제도적 통합은 사실상 이미 진행되어 왔다. GMS 프로그램은 ASEAN제국 중 메콩강 유역국가에 중국의 원난 성까지 포함시켜 제도적 통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힘을 얻으려고 한다고 할 수 있다.

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될 예정이다(ADB, 2014).

8) 정상회담은 2002년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처음 열렸고, 2014년 12월 태국의 방콕 회담까지 다섯 차례 개최되었다.

2. 기능적 통합

1) 무역

먼저 GMS제국의 무역에 대해 살펴보자. GMS제국의 총수출액은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4,530억 달러에서 2조4,715억 달러로 5.5배 늘어났다. 총수입액은 같은 기간에 6.5배 늘어났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이 같은 기간에 수출과 수입 모두 3.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GMS제국의 무역 성장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GMS제국의 무역 성장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2012년의 경우 중국이 GMS제국 전체 수출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입도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무역 성장도 한국의 그것에 비해서는 앞서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수출은 같은 기간에 3.8배, 수입은 4.1배 증가하여 한국에 비해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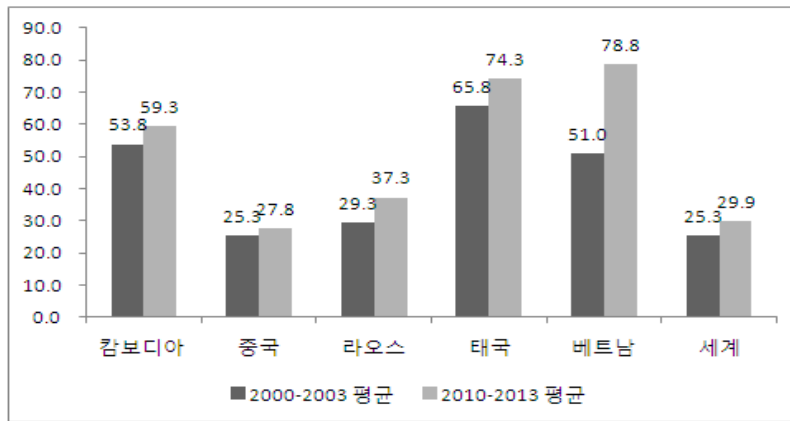
<표 2> GMS 제국의 수출과 수입의 변화(2000~2012)

(단위: 10억 달러)

| | 수출 | | | 수입 | | |
|-------|---------|----------|--------|---------|----------|--------|
| | 2000(A) | 2012(B) | B/A(배) | 2000(C) | 2012(D) | D/C(배) |
| 캄보디아 | 2.16 | 12 | 5.6 | 2.12 | 11.1 | 5.2 |
| 중국 | 360 | 2120 | 5.9 | 188 | 1410 | 7.5 |
| 라오스 | 0.241 | 2.13 | 8.8 | 0.592 | 3.59 | 6.1 |
| 미얀마 | 1.52 | 7.39 | 4.9 | 2.48 | 13.4 | 5.4 |
| 태국 | 73 | 218 | 3.0 | 57.5 | 192 | 3.3 |
| 베트남 | 16.1 | 112 | 7.0 | 16.5 | 101 | 6.1 |
| 계 | 453.021 | 2,471.52 | 5.5 | 267.192 | 1,731.09 | 6.5 |
| GMS 5 | 93.021 | 351.52 | 3.8 | 79.192 | 321.09 | 4.1 |
| *한국 | 178 | 562 | 3.2 | 153 | 492 | 3.2 |

자료: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의 데이터로 필자 작성.

이러한 무역 성장의 결과는 다음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GDP 대비 수출액 비율이 세계 전체의 경우 2000년대 초 25.3%에서 2010년대 들어 29.9%로 상승했는데 비해, 중국을 제외한 GMS제국의 해당 비율은 절대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중의 상승폭도 더 컸다. 이는 이 나라들의 경제성장을 무역이 상당 부분 견인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GMS제국의 GDP 대비 수출액 비율 변화

자료: World Bank, Data의 자료로 필자 작성.

무역의 증대에는 GMS 역내무역의 비중 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모든 국가에서 역내무역의 비중이 커졌다. 캄보디아는 수입의 역내무역 비중이 두 배 이상 커졌고, 중국은 수출의 역내무역 비중이 두 배 이상 커졌다. 라오스는 수출의 역내무역 비중이 두 배 정도 커졌으며 미얀마는 수출의 역내무역 비중이 4배 이상 커졌다. 태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 3배 정도 커졌고, 베트남은 수입의 역내무역 비중이 두 배 이상 커졌다.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는 수입의 역내무역 비중이 절대수준

으로 총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라오스와 미얀마는 수출의 역내무역 비중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나라들의 경우는 역내무역이 총무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3> 국별 GMS 역내무역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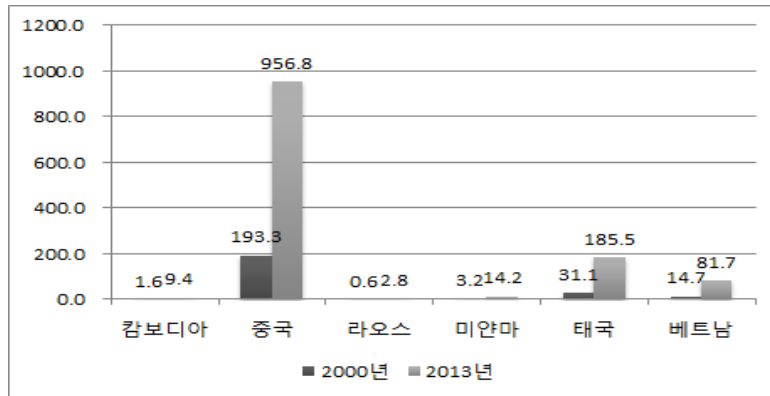
| | 수출 | | 수입 | |
|------|-------|-------|-------|-------|
| | 2000년 | 2012년 | 2000년 | 2012년 |
| 캄보디아 | 6.0 | 7.1 | 31.7 | 63.7 |
| 중국 | 1.6 | 3.4 | 2.6 | 3.3 |
| 라오스 | 33.7 | 68.3 | 81.3 | 80.0 |
| 미얀마 | 13.7 | 59.0 | 39.2 | 56.6 |
| 태국 | 7.8 | 19.6 | 6.8 | 21.2 |
| 베트남 | 11.0 | 16.0 | 16.1 | 34.1 |

자료: <표 2>와 같음.

2) 외국인투자

2000년대 들어 무역의 증가와 함께 GMS 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입도 크게 늘어났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투자 누적 유입액은 모든 GMS제국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절대 수준을 살펴보면, 태국과 베트남이 유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GMS제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GMS제국 사이의 외국인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Termpittayapaisith and Kumpa, 2012). 역내 외국인투자의 흐름을 보면 중국과 태국이 중요한 발원국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들어가는 역내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중국과 태국에서 나온다. 그리고 베트남의 역내 외국인투자는 캄보디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4> GMS제국의 누적 외국인투자 유입액(10억 달러)
 자료: UNCTAD, 2014의 자료로 필자 작성.

3) 인구이동

GMS 지역 내의 인구이동은 국제 인구이동, 지역 내 인구이동, 국경간 이동으로 특징지어진다. GMS의 노동력 이동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적어도 300만에서 500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는 얻기 어렵다. 태국은 노동력 이동의 지역 내 허브이며 전체 이주노동자의 60%가 몰려있는 국가다. 이주 노동자의 대다수는 저숙련 일자리에 일하고 있는 불법 이주자이다.

<표 4>의 자료는 이 지역의 인구이동에 관한 전문가들의 합의된 추정치⁹⁾로서 GMS제국 역내의 국제인구이동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준다. 태국에 미얀마 노동자들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고, 캄보디아에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많이 이주해 있다. 그 밖의 국제 인구이동은 규모로는 이 두 나라의 흐름에 비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Lewis et al.(2010)이 추정하고, ADB(2013)가 양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표 4> GMS제국의 역내 이주노동자 스톡(2008년 기준)

| 수용국 발원국 | 캄보디아 | 원난성 | 라오스 | 미얀마 | 태국 | 베트남 | GMS 총계 |
|------------|-----------|--------|--------|---------|-----------|--------|-----------|
| 캄보디아 | - | 0 | 6,000 | 6,000 | 248,000 | 8,000 | 262,000 |
| 원난성 | 25,000 | - | 80,000 | 120,000 | 0 | 14,000 | 239,000 |
| 라오스 | 3,000 | 5,000 | - | 0 | 208,000 | 1,000 | 217,000 |
| 미얀마 | 0 | 11,000 | 0 | - | 2,072,000 | 0 | 2,083,000 |
| 태국 | 20,000 | 3,000 | 12,000 | 5,000 | - | 4,000 | 4,4000 |
| 베트남 | 1,000,000 | 28,000 | 20,000 | 0 | 25,000 | - | 1,073,000 |

자료: ADB, 2013의 자료로 필자 작성.

인구이동의 동인은 지역 내 국가간 경제적 불균형과 인구학적 불균형, 즉 선진국의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및 최빈국의 노동력 과잉이다. GMS의 경제회랑¹⁰⁾을 따라 구축된 기반시설이 가져온 연결성의 개선도 이동성을 높이고 인구이동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요인들도 인구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보안이 허술한 국경선과 약한 통제력이 불법 이주를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밀수, 체류 기한 초과, 고용주 변경 등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 이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은 합법 노동자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관련 국가들은 노동력 수입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노동력의 규모도 알지 못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도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연재해는 이재민들뿐만 아니라 재건사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이동도 촉발한다. 또 정치적 사건도 노동력 이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미얀마의 개방은 이 나라에서 사업기회를 높임으로써 미래의 이주 패턴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많은데, 태국에 대한 인구 유입을

10) GMS 6개국과 ADB 사이에 맺어진 협약에 따라 GMS제국 전체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7개의 연결도로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Ishida and Isono 2012 참조.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태국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은 다시 인구 이동 패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GMS 역내의 국제인구이동은 주로 태국으로 향하며 저숙련 이주 노동자들이 주요 부분을 이룬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구이동의 많은 부분은 국내 인구이동이다. 모든 GMS제국 내에서 농촌-도시간 인구 이동이 많으며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농촌-농촌의 이동도 일어난다. 어떤 경우에는 농촌-도시간 이동이 인접국의 이주자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들은 농업부문에서 계절적인 노동력 부족을 매우는 역할을 한다. 국경간 이동은 GMS이 경제회랑을 통해 일어난다. 경제회랑에 위치해 있는 국경 도시¹¹⁾에는 그 나라의 잠재 이주자들이 모여 있다가 인접국에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면 그것을 메워주기 위해 국경 너머로 이동한다.

이상에서 GMS제국의 기능적 통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역의 경우는 2000년 이후 각국에서 크게 증가하여 세계 평균이나 한국과 같은 무역주도 성장국에 비해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역내무역도 크게 증가해서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왔다. 외국인투자 역시 각국별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태국과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다. 역내 외국인투자는 중국과 태국에서 발원해서 라오스, 미얀마로 베트남에서 발원해서 캄보디아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규모는 크지 않다. 역내 인구이동을 보면 2008년 말 현재 약 400만 명 내외의 이주노동자가 GMS제국 내에 체류하고 있다. 이 중 큰 이주 흐름은 베트남인들이 캄보디아로, 미얀마인이 태국으로 가는 경로이다.

11) 태국의 치앙쿱이 대표적인 예이다. 치앙쿱의 국경도시로서의 네트워크 작용에 대해서는 권기철(2002) 참조.

Ⅲ. 메콩강경제권의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1. 지역 국가간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의미

거시경제의 상호의존성은 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체 구축 자체를 목표로 할 때 핵심적 전제조건 중의 하나이다. 먼델(Mundell 1961)은 자신이 전개한 최적통화이론에서 어느 특정지역이 단일통화 도입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게 되면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 중 하나가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이다. 이것은 국가 간 자본과 노동력, 재화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재정이전 등을 통한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의 효과 확보에 중요하다.¹²⁾ 이 이론은 EU의 통화단일화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준 바 있다(Bayoumi and Eichengreen 1997; Kim and Chow 2003). 거시경제의 상호의존성은 금융시장 통합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Kodres and Prisker 2002; Sharma and Wonbangpo 2002). 한편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그것이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이든, 비공식적인 경제관계 형성을 통해서이든 그 참여국들에게 생산물 판매시장의 확대와 분업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EU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식적 경제통합체 구축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GMS제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DP성장률과 물가수준(CPI)을 거시변수로 선정해서 각

12) 프랑켈과 로즈(Frankel and rose 1998)도 통화(또는 경제) 통합의 조건으로 무역 규모, 거시적 충격과 순환의 유사성, 노동이동의 정도, 재정이전을 통한 위험공유 제도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국의 해당 변수 사이에 장기 및 단기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아돔 등(Adom, Sharma and Morshed 2010)이 아프리카 주요 8개국에 대해, 그리고 권기철·김규(2011)가 마그레브제국에 대해 경제통합 잠재력을 분석하면서 사용했던 것이다. 아돔 등에 따르면 일군의 국가들이 의미 있는 통화/경제통합을 이룩하려면, GDP와 몇몇 다른 거시변수의 장기적 움직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변수들의 단기 경기순환이 일치해야 한다. 이 방법은 관련국들의 장기 관계와 단기 관계를 파악하여 거시경제적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방법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차용해서 GMS 프로그램의 성과로서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 방법과 데이터

이 논문에서는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분석하기 위해 GMS제국의 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대상으로 공통 추세의 존재 여부 및 그 개수, 공통 순환의 존재와 그 개수를 검정한다.

시계열 자료 집합에서 공통 추세의 존재와 그 수는 공적분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검정할 수 있다(Adom et al., 2010; 권기철·김규 2011). 이것은 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시계열 자료에 대한 각각의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고, 거기서 도출된 우도비율 검정통계량 λ_{trace} 와 λ_{max} 를 이용하여 검정한다. λ_{trace} 통계량은 최대 r 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검정하며, λ_{max} 통계량은 $(r+1)$ 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한다는 가설에 대하여 r 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검정한다.¹³⁾

13) 분석 모형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GMS제국 경제 간의 단기적 거시경제관계, 즉 공통 순환의 존재에 대한 분석은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벡터오차수정모형에서 시차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경우 시계열들은 그레인저 인과관계를 갖는데, 이것은 그것들 사이에 단기동조화, 공통 순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IBRD에 의해 제공되는 GMS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자료이다. GMS 프로그램이 시작된 199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미얀마의 경우는 2005년 이후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석에서 제외한다. 중국의 경우는 GMS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이 윈난 성과 광시주양자치지구이기 때문에 해당 성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중국의 성별 통계자료가 신뢰도가 떨어지며(연합뉴스, 2013), 현실적으로 신뢰성 있는 성별 통계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전체의 통계를 이용한다.¹⁴⁾

3. 분석 결과¹⁵⁾

각 시계열이 안정적인지를 검정하기 위해 먼저 단위근 검정을 실시했다. 시계열이 불안정하면 장기추세나 계절변동과 같은 요소들이 시계열 자료에 포함되어 분석결과에 잘못된 인과관계가 포함될 수

14) 국민경제 내의 한 지역경제는 국민경제 그 자체와 밀접한 거시경제적 연관을 갖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역경제의 동향은 국민경제에 의해 결정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처럼 국제지역경제 소속 국들 간의 거시경제적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경제의 동향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국민경제의 동향을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Armstrong and Taylor 2000: 64-66 참조. 지역 거시경제와 국가 거시경제의 경기동향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례로서 황상연, 2012 참조.

15) 계량 분석의 상세 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있다. 이 경우에는 시계열을 차분하거나 계절변동을 제거하는 등의 자료 변환이 필요하게 된다. 단위근 검정은 ADF test와 PP test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했다. 1993~2013년 기간의 GDP성장률은 태국을 제외하고 모든 시계열이 불안정하였고, 1차 차분 시계열은 안정적이었다.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은 거꾸로 라오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시계열이 안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물가상승률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시계열을 1차 차분하여 안정성을 검정했다. 모든 1차 차분 이후 모든 시계열이 안정성을 갖게 되었다.

GMS제국의 거시경제에 공통 추세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불안정한 시계열에 사용하는 공적분 분석을 GDP와 물가상승률에 대해 시행했다. 공적분 검정에는 trace 통계량과 max eigenvalue 통계량 등 두 가지 통계량이 사용되었다. 이 분석에 따르면 GDP성장률의 경우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5개국 중에서 적어도 1개(max eigenvalue 통계량) 내지 3개(trace 통계량)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한다. 이는 5개국 사이에 1개 또는 3개의 공통추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의 경우에는 trace 통계량과 max eigenvalue 통계량이 공히 적어도 1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GMS제국의 거시경제 변수들 사이에 공통 순환이 존재하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해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GDP성장률의 경우, 중국→캄보디아, 라오스→베트남의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중국→베트남, 태국→라오스의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서 GMS제국은 각각 2개씩의 인과관계를 단기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석 결과의 해석

GMS제국 거시경제변수간의 공통 추세와 공통 순환의 개수만을 보고 이들 나라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비교의 대상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비교의 가장 좋은 방법은 ①GMS 프로그램 추진 이전과 이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일 것이다. 그게 아니면 ②GMS프로그램의 출범 이후를 2개의 시기로 나누어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면 된다. ①의 방법은 유감스럽게도 분석 가능한 1993년 이전의 자료가 중국, 미얀마, 태국 것만 있어서 적용할 수 없다.¹⁶⁾ 즉 1993년 이전 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앞의 1993~2013년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직접 비교할 자료가 없다. ②의 방법도 적용 불가능하다. GMS프로그램의 출범 이후를 2개의 시기로 구분할 경우 시계열이 짧아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또 다른 비교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③세계의 여타 지역과의 비교이다. 이 방법은 현실성이 있다. 이 논문과 유사한 분석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 아돔 등(Adom et al. 2010)이 아프리카 주요 8개국¹⁷⁾에 대해, 그리고 권기철, 김규(2011)가 마그레브제국에 대해 수행한 연구가 있다. 이것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보자. 아돔 등(Adom et al. 2010)에 따르면 이들 8개국의 실질 GDP 사이에 7개의 공적분 벡터가, 물가상승률 사이에 8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한다. 그리고 실질 GDP에서 공통 순환이 8개 존재한다. 사실 이들은 아프리카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지만, GMS제국처럼 인접해있지

16) 참고로 중국, 미얀마, 태국의 3개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분 분석과 그레인저 인과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국, 미얀마, 태국 사이에 그레인저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물가상승률에서 1개의 공적분 벡터가 확인되었다. 부록 참조.

17) 알제리,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케냐, 앙골라, 남아프리카의 8개국이다. Adom et al.(2010).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공통 추세와 공통 순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비하면 인접국들로 구성된 GMS제국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 추세와 공통 순환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마그레브제국은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아, 모로코, 튀니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마그레브 5개국 사이에 GDP성장률에 4개의 공통 추세, 물가상승률에 1개의 공통 추세가 존재하며, 공통 순환도 GDP와 물가에 대해 각각 2개씩 존재한다. 마그레브제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1989년의 아랍 마그레브 연합(Arab Maghreb Union, AMU) 결성 이후 본격화되었지만, 내부 갈등으로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지 못했다(권기철, 김규, 2011). 협력 사업이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어온 GMS제국에 비해 협력이 미진했던 마그레브제국이 GMS제국보다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GMS제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협력의 원활한 진행을 고려할 때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약한 상호의존성의 이유로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GMS제국의 대부분이 짧은 시장경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라오스는 1986년 새 경제계획(New Economic Mechanism, NEM)을 계기로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작했고,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의 추진을 계기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작했다. 중국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본격 추진한 것은 1992년이다. 캄보디아의 경우도 시장경제의 도입은 1991년에 선언되었으나 사회정치적 안정을 회복하여 시장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이처럼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GMS제국이 뒤늦게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에는 그 기반이 취약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GMS제국의 수출에서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2000년 이후 이 비중은 비교적 크게 상승(2000년 3.4%에서 2009년 6.4%)했지만 여전히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Srivastava and Kumar, 2012). 라오스와 미얀마의 경우는 비교적 역내 무역의 비중이 높지만(<표 5> 참조), 이들의 무역액 자체가 크지 않아 GMS제국 전체의 역내 무역 비중은 낮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출발이 물질, 인적 교류라는 점을 생각하면 낮은 역내 무역 비중은 낮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직접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GMS제국 수출의 목적지(2012)

| | 중국 제외 GMS | 중국 | 여타 세계 | 계 |
|------|-----------|------|-------|-------|
| 캄보디아 | 4.9 | 2.2 | 92.9 | 100.0 |
| 중국 | 3.4 | - | 96.6 | 100.0 |
| 라오스 | 33.6 | 34.7 | 31.7 | 100.0 |
| 미얀마 | 44.4 | 14.6 | 41.0 | 100.0 |
| 태국 | 5.4 | 14.2 | 80.4 | 100.0 |
| 베트남 | 3.7 | 12.3 | 84.0 | 100.0 |

자료: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의 데이터로 필자 작성.

셋째, GMS제국의 국가별 경제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2013년의 GDP(경상가격 기준)를 보면,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각각 152억 달러와 111억 달러인데 비해,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3873억 달러와 1714억 달러로 10배 이상 크며, 중국은 9조2403억 달러로 100배 가까이 크다.¹⁸⁾ 경제규모가 상호간에 이렇게 크게 다르다면, 그 사이에는 거시적 상호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호의존관계보다는 일방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대부분의 GMS제국이 아직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18) The World Bank, Data 참조. <http://data.worldbank.org/>.

점이다. <표 6>에 따르면 중국과 태국을 제외하고는 ‘산업’의 비중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제조업의 미발달로 부품과 원자재의 해외조달과 완제품의 판매에서 해외시장의 활용이 미성숙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역내의 분업 연관은 미약하게 나타나게 된다.

<표 6> GMS제국의 GDP 구성비(201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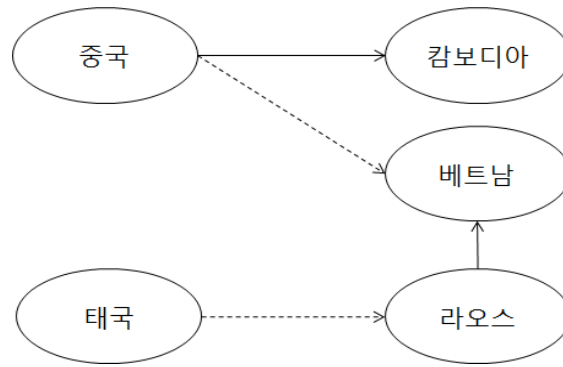
| 국명 | 농업 | 산업*(제조업) | 서비스업 |
|------------|----|----------|------|
| 캄보디아 | 36 | 24(16) | 40 |
| 중국 | 10 | 45(32) | 45 |
| 라오스 | 28 | 36(14) | 36 |
| 미얀마** | 57 | 10(7) | 33 |
| 태국 | 12 | 44(34) | 44 |
| 베트남 | 20 | 39(17) | 42 |
| 동아시아/태평양지역 | 11 | 44(30) | 45 |

주: * 산업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 전력, 수도, 가스가 포함됨.

** 미얀마 자료는 2000년 것임.

자료: The World Bank, Data.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일 점은 메콩강을 둘러싼 GMS제국의 역사적 관계이다. 이 나라들은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오랜 역사를 함께 해 왔다. 그 결과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캄보디아인들의 베트남인들에 대한 혐오, 베트남인들의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멸시, 캄보디아인들과 라오인들에 대한 타이인들의 우월의식, 베트남인들에 대한 타이인들의 경계의식, 타이인과 미얀마인 사이의 갈등, 중국인들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적대의식 등”(조흥국 2002)이 남아 있다. 공식적 측면에서 GMS제국의 협력관계가 확연히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국에 대한 인식들이 암암리에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진에 대한 저항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림 5>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방향

주: 실선은 GDP성장률의 인과 방향, 점선은 물가상승률의 인과 방향을 나타냄.

이것은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앞의 분석에서 확인된 그레인저 인과관계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GMS제국 내의 국가간 연관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GMS제국 내 경제적 변동의 주요 발원국은 중국과 태국이다. 이것은 GMS의 역내 무역에서 중국과 태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응하고 있다. 다만, 라오스는 유일하게 태국 변동의 영향을 받고 변동을 태국에 일으키는 나라로 밝혀졌는데, 라오스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의 역내 무역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변동의 발원지가 아니라 귀착지로 밝혀진 것도 이례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의 발원국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와 귀착국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는 각각 중국과 베트남이다. 이는 만약 외국 기업이 GMS 전체를 시장으로 하여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중국과 베트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두 국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역내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⁹⁾

IV. 결론

이 논문에서는 GMS제국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공적분 분석과 그레인저 인과관계 분석을 시행했다.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은 미얀마를 제외한 GMS제국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3년 사이의 연간 데이터를 이용했다. 요한슨(1991)이 제안한 λ_{max} 및 λ_{trace} 검정 통계량을 검토한 결과, GDP성장률에서 최소 1개의 공통 추세가, 물가상승률에서 1개의 공통 추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1969)을 이용하여 각국의 이 변수들 사이에 공통 순환이 있는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서 각각 2개씩의 공통 순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공통 추세와 공통 순환의 존재로 밝혀진 거시경제적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의 상호의존성을 의미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 결과를 아프리카 8개국 및 마그레브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아프리카 8개국은 서로 인접한 국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통 추세와 공통 순환을 갖고 있었다. 마그레브제국은 인접국이고 지역협력체를 일찌감치 결성했음에도 그간 내부적 갈등이 심해서 협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GMS제국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의 공통 추세와 공통 순환이 발견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GMS제국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그간 상대적으로 깊이 진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논문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추정했다. 첫째, GMS제국 대부분이 짧은 시장경제의 역사를 갖고 있다. 둘째, GMS제국의 무역에서

19) 자료의 한계상 미얀마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미얀마가 태국과 인접해있고, 그간 태국과의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태국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셋째, GMS제국의 국가별 경제 규모의 차이가 크다. 넷째, GMS제국 대부분의 아직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메콩강 유역국가들의 역사에서 경험해온 갈등들이 암암리에 이 지역 사람들의 의식에 잠재해 있어 협력의 증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을 수 있다.

아울러 이 논문은 그레인저 인과관계 분석을 토대로 GMS제국 내의 국가간 연관관계를 도식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거시경제적 변동의 핵심 발원국은 중국이며, 귀착국은 베트남이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GMS제국이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키워 시장 확대와 분업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송 기반 확충과 무역 편의성 증대 못지않게 각국 내부의 산업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이는 ADB와 주요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GMS 프로그램에서 각국의 산업화를 위한 사업들이 더 많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이 지역에 진출해서 GMS제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는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핵심 국가로서 중국과 베트남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윈난 성 지역이나 베트남의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GMS제국의 잠재력을 더욱 충실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메콩강경제권, 거시경제적 상호의존, 공적분 검정, 그레인저 인과성 분석, 공통 추세, 공통 순환

〈참고문헌〉

- 권기철. 2002. “메콩강 유역 교역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 및 그 전망”. 조흥국 외. 『메콩강과 지역협력』. 부산외대출판부. pp.271-338.
- 권기철, 김규. 2011. “마그레브 제국 경제통합의 잠재력 분석과 통합 촉진 방안 모색.” 『지역해지역연구』13(1). pp.1-29.
- 손병해. 2011. 『국제경제통합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연합뉴스. 2013. “중국 성별 GDP 모두 전국 평균 이상... ‘통계 불신’”. 2013/10/29일자.
- 이효찬. 2014. “메콩강 유역 경제권의 현황과 향후 진출 시사점.” 『주간 금융경제동향』. 4(4). 2014.1.
- 조대현. 2011. “메콩강 경제권에 외자 대거 유입.” 『Chindia Journal』. 2011.4.
- 조흥국. 2002. “메콩강의 경제적 잠재력과 유역국가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조흥국 외. 『메콩강과 지역협력』. 부산외대출판부. pp.11-74.
- 황상연. 2012. “우리나라 지역 경기변동의 요인분석.” 『경제학연구』. 61-2. pp.31-68.
- ADB. <http://www.gms-eoc.org/gms-program>.
- ADB. 2011.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Strategic Framework 2012-2022*. Manila.
- ADB. 2013. *Facilitating Safe Labor Migr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Manila.
- ADB. 2014. *Greater Mekong Subregion Regional Investment Framework Implementation Plan(2014-2018)*, Manila.
- Adom, A. D., S. C. Sharma and A. M. Morshed. 2010. “Economic Integration in Africa”.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 Finance*. 50. pp.245-253.
- Armstrong, H. and J. Taylor. 2000.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Oxford: Blackwell.
- Bayoumi, T. and B. Eichengreen. 1997. "Ever Closer to Heaven? An Optimum Currency-Area Index for European Countries". *European Economic Review*. 41. pp.761-770.
- Frankel, J. A. and A. K. Rose. 1998. "The Endogeneity of the Optimum Currency Area Criteria". *Economic Journal*. 108, 449. pp.1009-1025.
- Granger, C. W. J. 1969. "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Spectral Methods". *Econometrica*. 37. pp.424-438.
- Gujarati, D. 2011. *Econometrics by Example*. Macmillan(강달원, 김윤영, 제상영, 차경수, 홍찬식 역. 『예제를 통한 계량경제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3).
- Ishida, M. and I. Isono. 2012. "Old, new and potential economic corridors in the mekong region". in *Emerging Economic corridors in the Mekong Region*. edited by M. Ishida. Bangkok: IDE-JETRO. pp.1-42.
- Johansen, S. 1988. "Statistical analysis of cointegrating vector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2. pp.231 - 254.
- Johanson, S. 1991. "Estimations and Hypothesis Testing of Cointegration Vectors in Gaussian Vector Autoregressive Models". *Econometrica*. 59. pp.1551-1580.
- Johanson, S. and K. Juselius. 1990.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nd Inference on Cointegration, with Application to the Demand for Mone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2, 2. pp.169-210.

- Kim, Y. and K. H. Chow. 2003. "Optimum Currency Area in Europe: An Alternative Assessment". *Economic Letters*. 81. pp.297-304.
- Kodres, L. E. and M. Pritsker. 2002. "A Rational Expectation Model of Financial Contagion". *Journal of Finance*. 57. pp.769-799.
- Lewis, D. R., N. Lekfuangfu, I. Vojackova-Sollorano, F. Soda, and C. Natali. 2010. *Forecasting Migration Flows: The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Development, Demographic Change and Migr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Draft by IOM Team.
- Mundell, R. A. 1961. "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51. pp.657-665.
-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http://atlas.media.mit.edu>.
- Sharma, S. C. and P. Wongbangpo. 2002. "Long-Term Trends and Cycles in ASEAN Stock Markets". *Review of Financial Economics*. 11. pp.299-315.
- Srivastava, P. and U. Kumar. (eds.). 2012.,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DB.
- Steffensen, Craig. 2012. "Greater Mekong Subreg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iland Focus 2012*.
- Termpittayapaisith, A. and L. Kumpa. 2012. "Dynamics of economic growth in the GMS: a retrospective view 2000-2010". in ADB. *Conferenc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MS 2020: Balancing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angkok. 2012. pp.10-11.
- The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
- UNCTAD. 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New York and Geneva.

(2015.01.28투고, 2015.02.13심사, 2014.02.18계재확정)

〈부록〉

1. 계량분석 방법

시계열 자료 집합에서 공통 추세의 존재와 그 수는 공적분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검정할 수 있다(Adom et al., 2010; 권기철, 김규 2011). X_t 를 n 개국의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n \times 1$ 벡터라 두면, 벡터오차수정모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²⁰⁾

$$\Delta X_t = \Gamma_1 \Delta X_{t-1} + \Gamma_2 \Delta X_{t-2} + \dots + \Gamma_{p-1} \Delta X_{t-p+1} - \Pi X_{t-p} + \epsilon_t$$

(여기서 $\Gamma_i = -I + \sum_{j=1}^{p-1} \Pi_j$, $\Pi = I + \sum_{j=1}^p \Pi_j$ 이다.)

이 식에서 X_t 는 $I(1)$ 인 변수들로 구성된 벡터이며, Γ_i ($i = 1, \dots, p-1$)와 Π 는 각각 1차 차분된 변수들과 본래의 변수들과 관련된 모수들로 구성된 행렬이다. 요한슨(Johanson 1988, 1991)과 요한슨, 유셀리우스(Johanson and Juselius, 1990)에 따르면 행렬 Π 는 벡터 X_t 의 계열들 사이에 장기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공적분 벡터의 수는 행렬 Π 의 계수(rank)로부터 결정되며, 세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첫째, 만약 Π 가 완전 계수 행렬(full rank matrix)이라면 X_t 속의 변수들은 수준(변수)으로 안정적이다. 둘째, 만약 Π 의 계수가 0이면, X_t 의 안정적인 선형결합이 없다. 셋째, Π 의 계수(r)가 0보다 크고 n 보다 작다면 공적분 벡터가 r 개 있다.

그리고 행렬 Π 는 $\Pi = \alpha\beta'$ 로 분해할 수 있다. 여기서 β 는 장기

20) 벡터오차수정모형에 대해서는 Gujarati(2011: 318-329) 참조.

계수의 $(8 \times r)$ 행렬이고, α 는 오차 수정 페러미터에 대한 비중의 $(8 \times r)$ 행렬이다. 이것들은 우도비율 검정 통계량 λ_{trace} 와 λ_{max} 를 제공해준다. 이것을 이용하여 공적분 벡터의 수에 대한 검정을 행할 수 있다. λ_{trace} 통계량은 최대 r 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검정하며, λ_{max} 통계량은 $(r+1)$ 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한다는 가설에 대하여 r 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검정한다.

단기적 거시경제관계, 즉 공통 순환의 존재에 대한 분석은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벡터오차수정모형에서 시차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경우 시계열들은 그레인저 인과관계를 갖는데, 이것은 그것들 사이에 단기동조화, 공통 순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x 가 y 의 원인인가의 문제에 대한 그레인저(Granger, 1969)의 접근법은 현재의 y 가 y 의 과거 값에 의해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지를 보고 x 의 시차 값을 추가하면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x 가 y 의 예측에 도움이 된다면, 즉 x 의 시차 값에 대한 계수가 안정적으로 유의하다면, y 는 x 에 의해 그레인저-유발되었다(Granger-caused)고 말할 수 있다. 경제변수들 사이에는 많은 경우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즉 x 는 y 를 그레인저 유발하고 y 는 x 를 그레인저 유발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 x 가 y 를 그레인저 유발한다”는 언명이 y 가 x 의 효과이거나 결과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레인저 인과관계 분석은 그룹 내의 모든 가능한 (x, y) 계열의 짝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2변량 회귀방정식을 추정한다.

$$\begin{aligned} y_t &= \alpha_0 + \alpha_1 y_{t-1} + \dots + \alpha_l y_{t-l} + \beta_1 x_{t-1} + \dots + \beta_l x_{t-l} + \epsilon_t \\ x_t &= \gamma_0 + \gamma_1 x_{t-1} + \dots + \gamma_l x_{t-l} + \delta_1 y_{t-1} + \dots + \delta_l y_{t-l} + u_t \end{aligned}$$

추정 결과 도출되는 F 통계량은 각 방정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

합 가설을 검정한다.

$$\beta_1 = \beta_2 = \dots = \beta_l = 0 \quad , \quad \delta_1 = \delta_2 = \dots = \delta_l = 0$$

귀무가설은 x 가 y 를 그레인저 유발하지 않으며(첫 번째 회귀식), y 가 x 를 그레인저 유발하지 않는다(두 번째 회귀식)는 것이다.

2. 분석 결과

1) 단위근 검정

단위근 검정은 ADF test와 PP test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했다. 1993~2013년 기간의 GDP성장률은 태국을 제외하고 모든 시계열이 불안정하였고, 1차 차분 시계열은 안정적이었다(<표 7> 참조). 즉 태국을 제외한 모든 GMS제국의 GDP는 $I(1)$ 이다.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은 거꾸로 라오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시계열이 안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물가상승률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시계열을 1차 차분하여 안정성을 검정했다. 모든 1차 차분 시계열이 안정성이라는 사실은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 1993~2013년간의 GDP성장률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 | 수준 | | 차분 | |
|------|------------|------------|------------|------------|
| | ADF | PP | ADF | PP |
| 캄보디아 | -2.669388 | -2.669388 | -4.726690* | -4.95611* |
| 중국 | -1.932496 | -1.957782 | -3.727763* | -3.716701* |
| 라오스 | -1.222357 | -2.989973 | -4.522495* | -9.349746* |
| 태국 | -3.598182* | -3.582920* | -3.207234* | -7.376972* |
| 베트남 | -2.380412 | -1.667725 | -3.752161* | -4.280148* |

주: 1) ADF - Augmented Dickey-Fuller Test; PP - Phillips-Perron Test.

2) 검정에는 Schwartz Information Criterion에 따라 시차 변수를 포함시킴.

2) *는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의미함.

<표 8> 1993~2013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 | 수준 | | 차분 | |
|------|------------|------------|------------|------------|
| | ADF | PP | ADF | PP |
| 캄보디아 | -3.983766* | -3.983766* | -6.356444* | -14.39178* |
| 중국 | -3.282947* | -2.585448 | -7.681246* | -4.628820* |
| 라오스 | -2.391146 | -2.419004 | -4.241484* | -5.587588* |
| 태국 | -4.496690* | -4.496690* | -5.622472* | -20.13208* |
| 베트남 | -3.548912* | -3.500047* | -5.376419* | -10.71920* |

주: <표 5>와 같음.

2) 공적분 검정

공적분 검정에는 trace 통계량과 max eigenvalue(maximum likelihood eigenvalue) 통계량 등 2개의 통계량이 사용된다. 두 통계량에서 귀무가설은 “최대 N 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로 설정된다. 가설 검정은 0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적분 관계의 수는 최종적으로 기각된 귀무가설의 최대 공적분 관계 수에 1을 더한 값이 된다. 즉 최종적으로

<표 9> 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공적분 분석 결과(1993~2013)

| 변수 | H_0 | λ_{TRACE} | λ_{MAX} |
|--------|------------|-------------------|-----------------|
| GDP성장률 | 0 | 93.54164* | 38.02248* |
| | $r \leq 1$ | 55.51916* | 23.13359 |
| | $r \leq 2$ | 32.38557* | 19.86166 |
| | $r \leq 3$ | 12.52391 | 12.43356 |
| | $r \leq 4$ | 0.090347 | 0.090347 |
| 물가상승률 | 0 | 99.32682* | 53.09066* |
| | $r \leq 1$ | 46.23616 | 22.31684 |
| | $r \leq 2$ | 23.91932 | 13.22911 |
| | $r \leq 3$ | 10.69022 | 10.45165 |
| | $r \leq 4$ | 0.238565 | 0.238565 |

주: 1) λ_{TRACE} 는 trace통계량을, λ_{MAX} 는 maximum eigenvalue통계량을 나타냄.

2) r 는 공적분 벡터의 개수를 나타냄.

3) *는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의미함.

로 기각된 귀무가설이 “최대 N 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라면 공적분 모형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 사이에는 $N+1$ 개의 공적분 관계가 있다고 간주한다. 이 분석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3)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

GMS제국의 거시경제 변수들 사이에 공통 순환이 존재하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해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10> 및 <표 11>와 같다.

<표 10> GMS제국의 GDP성장률에 대한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 $x \backslash y$ | 캄보디아 | 중국 | 라오스 | 태국 | 베트남 |
|------------------|----------|---------|---------|---------|----------|
| 캄보디아 | - | 1.53128 | 0.13969 | 0.41671 | 0.07588 |
| 중국 | 3.98721* | - | 0.20950 | 0.95521 | 0.19966 |
| 라오스 | 2.13721 | 1.62149 | - | 0.24938 | 6.28225* |
| 태국 | 0.66466 | 0.79538 | 0.19014 | - | 2.67978 |
| 베트남 | 0.08262 | 0.20167 | 0.70717 | 1.18225 | - |

- 주: 1) 시차는 2차 후행을 적용함.
- 2) 각 칸의 수치는 “ x 국의 GDP가 y 국의 GDP를 그레인저 유발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F 통계량임.
- 3) *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함.

<표 11> GMS제국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 $x \backslash y$ | 캄보디아 | 중국 | 라오스 | 태국 | 베트남 |
|------------------|---------|----------|----------|---------|----------|
| 캄보디아 | - | 0.064764 | 0.43105 | 2.75140 | 2.41076 |
| 중국 | 1.65707 | - | 0.63134 | 0.95521 | 4.03871* |
| 라오스 | 0.60651 | 0.26075 | - | 2.98291 | 0.83264 |
| 태국 | 0.05802 | 0.36572 | 5.70564* | - | 0.80309 |
| 베트남 | 0.36379 | 2.89640 | 0.23070 | 0.30647 | - |

- 주: 1) 시차는 2차 후행을 적용함.
- 2) 각 칸의 수치는 “ x 국의 GDP가 y 국의 GDP를 그레인저 유발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F 통계량임.
- 3) *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함.

4) GMS 출범이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표 12> GMS 출범 이전의 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공적분 분석 결과(1974~1992)

| 변수 | H_0 | λ_{TRACE} | λ_{MAX} |
|--------|------------|-------------------|-----------------|
| GDP성장률 | 0 | 29.19833 | 14.94677 |
| | $r \leq 1$ | 14.25156 | 9.777884 |
| | $r \leq 2$ | 4.473679 | 4.473679 |
| 물가상승률 | 0 | 30.18781* | 22.39140* |
| | $r \leq 1$ | 7.796407 | 6.439584 |
| | $r \leq 2$ | 1.356823 | 1.356823 |

주: <표 9>와 같음.

<표 13> GMS 출범 이전의 GDP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에 대한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1974~1992)

| $x \backslash y$ | | 중국 | 미얀마 | 태국 |
|------------------|-----|---------|----------|---------|
| GDP성장률 | 중국 | - | 3.96645* | 2.45208 |
| | 미얀마 | 2.18829 | - | 1.79382 |
| | 태국 | 0.33266 | 0.93643 | - |
| 물가상승률 | 중국 | - | 1.18012 | 1.23970 |
| | 미얀마 | 0.07120 | 0.20167 | 0.70717 |
| | 태국 | 2.78749 | 3.36938 | 2.23810 |

주: <표 10>과 같음.

<국문초록>

메콩강경제권의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이 논문의 목적은 메콩강경제권 국가들 간의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해 GMS제국의 GDP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장기 공통 추세 및 단기 경기순환의 공통 운동 경향의 존재를 밝히고자 했다. 계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GDP성장률의 장기 공통 추세가 최소 1개, 인플레이션율의 장기 공통 추세가 1개 존재한다. 그리고 GDP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에 각각 2개씩의 공통 순환이 존재한다. 이 결과를 세계의 다른 지역(아프리카 8개국 및 마그레브제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GMS제국의 거시적 상호의존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MS제국의 상호의존성이 약한 이유는 짧은 시장 경제 역사, 작은 역내무역 비중, 경제규모의 큰 격차, 낮은 산업화 수준 때문이다. 이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GMS제국은 산업화 수준을 높여서 시장을 확장하고 노동분업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 투자자들은 GMS제국에 진출할 때 거시적 상호의존성의 중심인 중국의 원난성 베트남에 중점을 두고 투자전략을 짜야 한다.

주제어: 메콩강경제권,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 공적분검정, 그레인저인과성 분석, 공통 추세, 공통 순환

<Abstract>

An analysis of macro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Greater Mekong Sub-region countries

KWON Kichul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macro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Greater Mekong Sub-region(GMS) countries. To analyse the macroeconomic interdependence, I try to find out synchronous long-run movements in their GDP growth rates and inflation rates and short-run business cycles in them.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re are at least one common long-term trend in GDP growth rates and one in inflation rates, and there are two common cycles in GDP growth rates and inflation rates respectively. GMS countries' economic interdependence isn't stronger than those of other regions. The analytical results have som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GMS countries have to improve the levels of industrialization to expand the market and widen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m. Second, the investors, to launch the business targeting the whole GMS, had better to turn their eyes to Winnan Province of China and Vietnam as the key countrie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of the region.

Key words: Greater Mekong Sub-region, macroeconomic interdependence, common trends, common cycles.

